

라틴 아메리카 리듬에 관한 연구

- Tresillo Rhythm 중심으로

김관진
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
e-mail:kimkj00@tw.ac.kr

A Study on Latin American Rhythms

- Focusing on Tresillo Rhythm

Kwan-jin Kim
Dept. of Applied Music, Tongwon University

요약

본 연구는 월드뮤직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영미권 음악을 시작으로 국내 대중음악 K-pop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틴음악의 리듬의 주요 요소인 ‘트리플렛’을 뜻하는 트레시요(tresillo) 리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.

1. 서론

월드 뮤직(World music)은 일반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음악,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민속 음악이나 민족음악까지 포함하는 단어이다[1].

라틴 아메리카 음악은 멕시코의 음악적 전통, 중앙 아메리카,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던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, 이러한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 전역으로 이동한 아메리카 원주민, 아프리카 및 유럽의 영향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.

서양음악과 동양음악에 속하지 않는 “제 3세계의 민족음악” 또는 “다양성을 통한 세계문화의 소통”으로 인식된다[2].

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주요 리듬인 트레시요(tresillo) 리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.

2. 본론

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래된 음악, 즉 아메리카 대륙의 로망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[3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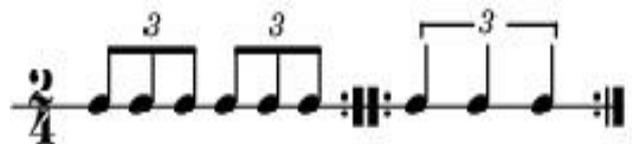
이베리아 유럽(스페인과 포르투갈), 서아프리카, 식민지 이전의 토착 아메리카의 음악 전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, 아프리카 및 유럽의 영향 문화적으로 혼합되어

오늘날 카리브해, 중미 및 남미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 음악 및 민속 음악 형식의 모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.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노예화된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프리카 음악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음악도 통합되어 있다[4].

아프리카의 리듬과 악기, 스페인과 유럽의 악기와 노래 형식이 혼합되어 컴비아(Cumbia), 바차타(Bachata), 보사노바(Bossa nova), 메렝게(Merengue), 룸바(Rumba), 살사(Salsa), 삼바(Samba), 손(Son), 탱고(Tango), 라틴 팝(Latin pop) 록(Rock), 댄스(Dance) 등 영향력 있는 장르에 결합되어 파생되고 있다.

트레시요(Tresillo) 리듬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음악과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듬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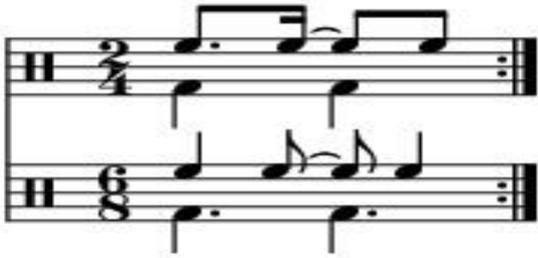
스페인어로 ‘트리플(Triplet)’을 뜻하는 트레시요(Tresillo)는 세 개의 비트가 두 개의 위치에 맞춰져 싱크로페이션을 만드는 특정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.



[그림 1] Tresillo rhythm

일반적인 트레시오(Tresillo)는 두 개의 점으로 구분된 4분음표 다음에 4분음표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.

Latin American Music. Routledge”, pp. 4, 2008년 1월.



[그림 2] Tresillo-over-two

즉, 리듬에 3개의 음표가 있더라도 이중 기반 패턴(박자를 짝수로 나눈다는 의미)이라는 점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.

3. 결론

아프리카 음악의 교차 리듬 내에서 시작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 음악은 트레시오가 직선 4/4 박자를 연주하는 레게톤의 템보 리듬의 결과로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연관성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. 최근 월드음악과 더불어 K-pop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,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차용되고 있다.

팝 음악에서 사용은 Justin Bieber ‘Sorry’, Ed Sheeran ‘Shape of You’, Luis Fonsi ‘Despacito’와 국내 음악에서 레드벨벳 ‘행복(Happiness)’, 마마무 ‘너나해’, 블랙핑크 ‘Forever Young’, 여자아이들 ‘Latata’ 등 국내 K-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에서 트레시오 결합 리듬의 차용을 찾아 볼 수 있다.

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리듬의 결합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

본 연구는 세계 최정상 아티스의 음악과 국내 음악에서 사용되는 트레시오 리듬에 관한 내용으로 앞으로 리듬의 차용 또는 결합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.

참고문헌

- [1] 박범근, 조태선, “케이팝과 월드뮤직의 융합에 관한 연구” 디지털융합학회논문지, 제 20권 3호, pp. 400, 2022년.
- [2] 고혜영, “월드 뮤직의 비판적 검토”, 한국예술종합학교, pp. 21, 2003년.
- [3] Torres, George, “Encyclopedia of Latin American Popular Music”, ABC-CLIO. pp.18, 2013년.
- [4] Olsen Dale, Sheehy Daniel, “The Garland Handbook of